

## 까오 바 콧(Cao Ba Quat 高伯适)의 반란(1854) 원인에 대한 일 고찰\*

최 병 욱 \*\*

### I. 머리말

민 망 (Minh Mang 明命, 1820-1841) 황제는 베트남 역사상 그 어느 황제보다도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다. 정책 사안에 대한 반응에 즉각적이고 신하들과 논함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었다. 늘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으며 논리적인 자기주장이 강했다. 그래서 민 망 시대의 『실록』을 볼 것 같으면 황제가 끊임없이 신하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제압하며 지시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런데 『실록』에는 20여 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 민 망 황제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가 침묵하는 가운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드러내는 묘사가 두세 번 나타난다. 이는 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예외적이며 바로 그 때문에 민 망의 고민 내지는 당혹스러움

---

\* 이 논문은 2001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1-050-B00016)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대동아문화연구소

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의 재위 초기와 말기의 것이다. 재위 말기에 있었던 기록을 먼저 소개하자면, 그것은 1840년부터 캄보디아와 남부베트남에서 견잡을 수 없이 크메르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였다. 이는 수년간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명분 하에 베트남화를 추진해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에 대한 황제의 비통함을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드러내고자 선택했을 사관(史官)들의 숨겨진 표현 방식이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즉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으로부터 왕으로 책봉받기 위해 하노이로 북순(北巡)하는 여정에서 나타난다. 그는 중부 쩡 빈(Quang Binh 廣平) 성에서 과거 남북을 가르던 장성을 둘러보고는 그 장성의 끝인 녃 레(Nhat Le 日麗) 해구에 다다라 “그곳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眺望久之)”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1:10b)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장성은 과거 2세기(16c-18c) 동안 북부 쩌(Trinh 鄭) 씨와 남부 응우옌(Nguyuen 阮) 씨의 판도를 가르던 경계였다. 즉 민 망 황제는 자신의 선조가 지배하던 영역의 최북단에 서서 자기가 이제 바야흐로 발을 딛게 될 과거 쩌 씨의 영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침묵 속의 응시라고 하는 묘사를 통해서 사관이 그려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북부에 대한 민 망의 복잡다단한 심사였을 것이다. 과거 적대 지역이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신 또는 조정의 권위에 대한 복종에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의 근거지보다도 훨씬 베트남의 전통이나 문화적 원류에 가까웠던 관계로 설령 자신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열등감을 민 망 황제는 삭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 망에게 북부 인심을 획득하는 일은 중요했고 북부인들의 도움 역시 필요했다. 녃 레 해구를 오랫동안 바라보던 민 망이 내린 지

시는 남북의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자는 것이었고, 이와 관련된 그의 유시(諭示)에는 남북의 장사(壯士)들 각자는 단지 주군들의 명을 따르다 전사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大南寔錄正編第二紀』, 11:10b-11a). 200여 년을 싸운 상대를 포용한다는 의미로서 북부인들을 안심시키는 대단히 적극적인 정치적 연행(演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더 나아가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민 망은 ‘구북성청예유현(求北城淸又遺賢)’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한다(『大南寔錄正編第二紀』, 12:9b-10). 여기서 북성(北城)이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홍하 델타 지역을 이르고 청예(淸又)란 타인 호아(淸化)와 응애 안(又安), 즉 북 중부 지역의 주요 두 개 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과거 쩌의 영역 사인(士人)들의 지원을 확보하고 그들을 포섭하여 국가 경영의 동반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민 망 시기 중앙 정치계로 북부 사인들의 약진이 활발했던 것은(Choi 2004: 112) 바로 이런 민 망의 태도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런데 우리는 응우옌 왕조 시기의 역사 속에서 유가 지식인의 문제와 관련해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북부 홍하 델타 출신으로서, 일찍이 향시에 합격하고 문재(文才)를 드날렸으며 하노이 근처 쩌 떠이(Son Tay 山西) 성 국위부(國威府)의 교수(教授)로서 해당 지역의 교육 업무를 담당했던 까오 바 껏(1809 - 1854)이라는 유사(儒士)가 중앙 조정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민 망 황제 이후의 주요 인물들을 등재한 『大南正編列傳二集』(이하 『열전』)에는 「역신열전(逆臣列傳)」 내에 세 명의 반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레 반 코이(Le Van Khoi), 농 반 번(Nung Van Van 農文雲), 까오 바 껏 등이다. 레 반 코이는 남부에서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며, 농 반 번은 북부 산악을 근거지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비베트남인들이었다. 레 반 코이는 북부 까오 방(Cao Bang)의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무공을 세워 군 지휘관으로 출세해서 남부로 내려가 있던 인물이고, 농 반 번 역시 타이 족

계열의 농(Nung) 족으로서 한 농 족 지역의 지배자였다. 이에 비해 까오 바 찻은 평지의 베트남족이며, 하노이 주변 박 닌(Bac Ninh 北寧) 성, 즉 가장 오래된 베트남인들의 전통 지역 출신이고, 유학자였으며 시인이었던 인물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당시 체제 속에서 가장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인물이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유인선은 최근에 내놓은 저서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속에서 까오 바 찻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해 도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는데, 이는 반란을 일으킨 이유라기보다는 반란의 성격 그 자체에 대한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작 궁금한 것은 까오 바 찻은 왜 기존 질서에 대해 도전하려고 했는가이다. 19세기 베트남 역사 연구의 선구자인 우드사이드는 그의 저서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1971)에서 까오 바 찻에 대해 꽤 길게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우드사이드의 관심 역시 반란 지도자, 즉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뿐이었지 왜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는 밝혀내고 있지 못하다. 단지 이 인물의 경우를 들어 19세기 베트남 사회가 사인들의 불만, 변화의 욕구를 포용하지 못할 만큼 협소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고 있다. 동시대 중국에서는 관직 이외에 다양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데 반해 베트남은 그런 조직/활동이 발전하지 못했기에 강한 인성과 재능을 가진 까오 바 찻 같은 이의 불만은 그 표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반란이란 형태로 불거져 나왔다 는 것이다(Woodside 1988: 225-233). 즉 반란의 이유를 19세기 베트남 사회의 협애성(狹隘性)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서 이런 논리는 그의 저술에서 줄곧 지적하는 19세기 베트남 사회의 ‘저발전(중국과 비교하여)’을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일 뿐이다. 까오 바 찻이나 그 주변의 북부베트남 사인들의 입장을 탐구하려는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역신열전」에서는 까오 바 쫓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가 대단히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재주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조정에 제대로 씌어지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음을 원망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요지이다. 레 반 코이나 농 반 번에 의해 일어난 반란에 대해서는 그 원인 및 경과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반란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 인성, 반란의 경과 등에 대해서도 극히 기록이 소략하여 도대체 왜 그가 반란에 주도적으로 간여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점 또한 까오 바 쫓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역신열전」에서 다룬 것이 당시 사관들이 취득할 수 있었던 사실의 전부인가, 아니면 무언가의 고려 사항 때문에 모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인가? 만약에 후자라면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학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관직으로 부(府)의 교육 업무를 맡았던 교수를 지낸 까오 바 쫓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까오 바 쫓과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까오 바 쫓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누명을 썼을 뿐이라든가(Vu Khieu 1987: 174), 술에 취해 있다가 얼떨결에 반란군에 끌려가게 된 관계로 할 수 없이 가담한 것이라든가(Kieu Oanh Mau 1901: 29b) 하는 허황한 설들도 나타났다. 형태는 달리하고 훨씬 더 분석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까오 바 쫓의 반란 이유를 우연한 해프닝으로 돌리는 태도는 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글을 읽고 있던 가난한 유사가 어느 날 밤 문득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은 성인들의 고사를 생각하고는 반란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Truc Khe 1952: 84). 그의 생애나 교육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몽상가 아니면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적어도 반란 즈음)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정신적 현상은 곧 눈에 띄게 마련이고 ‘역신’을 단죄하는 근거를

늘어놓기 마련인 조정 사료가 이를 놓쳤을 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세상을 바꾸려는 혁명가로 본다든가(Le Tam 1950: 15) 농민반란 지도자로 보는 것도(Vo Xuan Dan 2003) 억지스럽다. 이렇듯 다양한 그러나 실증적이지 않아 보이는 주장들은 19세기 유학자가 가장 유학 발전의 전통이 오래된 지역에서 조정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예외적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까오 바 쫓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베트남의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한다. “성현(聖賢)을 배웠으나 성현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조정의 교육을 담당했으나 조정에 대항했고, 응우옌 왕조의 은혜를 입었으나 응우옌 왕조에 맞섰다(Nguyen Tai Thu 1980: 125).”

이런 모순 되어 보이는 모습은 왜 나타난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왜 까오 바 쫓이 반란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보다 납득할만한 제 원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인정했듯이 역사적인 자료들은 연구의 기본적인 구성 재료가 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본인이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문학 자료들이다. 역사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문학 분야에서 까오 바 쫓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약 1,500여 편의 시를 남긴 그는 종종 시인으로 언급되며 베트남 문학 사상 빠뜨릴 수 없는 존재로서, 19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몇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가 남긴 문학 작품이나 문학 연구자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역사 자료의 소략하거나 빠진 부분들을 메워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단지 문학 연구물들은 역사적 배경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가 극히 취약하다. 이는 까오 바 쫓에 대한 역사적 연구물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현상일 것인 바 정치적 구호나 감성적 상상력 등이 실증적 역사 배경을 대치한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문학 연구물이나 작품들도 역사 연구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본문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 까오 바 꾀으로 하여금 반란을 결심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제1 장에서는 까오 바 꾀의 성장 과정과 환로(宦路)의 추이를 살펴보겠다. 다소 전기적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은 그의 행적뿐만 아니라 이 시기 북부 사인들의 교육 과정이나 교유, 정치의식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며, 반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그의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다. 두 번째 장에서는 까오 바 꾀의 반란 결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의 개인적 경험 중 하주(下州, \* 싱가포르, 말라카, 바타비아 등 도서부 동남아시아 제지역을 지칭함) 여행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북부 사인들의 불만 요소가 되었을 당시의 국내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 II. 성장 과정과 환로(宦路)의 추이

까오 바 꾀은 출생이나 성장 과정이 특별했던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출생 및 성장 시기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809년에 태어난 그는 오룻이 응우옌 왕조 시대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열한 살, 그러니까 총명하다면 이미 세상을 분별할 만한 나이에 민 망 황제가 등극했고 베트남은 이제 바야흐로 유사 이래 가장 융성한 시기를 맞게 되었다. 게다가 민 망은 북부 사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고, 과거제도를 정착시켜 이 제도를 통해 유학 층을 두터이 하는 데도 열심이었다. 북부 사인들은 대거 중앙 조정으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민 망 치하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각종의 제도 정비 및 중앙 집권화를 진행시켰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병합 및 베트남화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1830년대까지 유사 이래 가장 광대한 영역을 포괄하는 베트남을 완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카오 바 꺾은 박 닌(Bac Ninh 北寧) 성, 자 럼(Gia Lam 嘉林) 현, 푸 티(Phu Thi 富市) 마을의 유학자 집안에서 출생했다. 전대(前代), 즉 레(Le 黎) 왕조 때에도 수명의 저명한 유학자들을 배출했고, 아버지도 과장을 들락거리던 유학자 집안 출신이었다. 총명하기까지 했다는 카오 바 꺾에게 당시 민 망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호의적인 것이었다. 『열전』에 의하면, 그는 박 닌 성 출신이나 이후 하노이 내성(內城)으로 옮겨가서 살았다고 한다. 박 닌만 해도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곳이었지만 꺾은 이에 더 나아가 북베트남의 완전한 중심지로 이동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노이에서 카오 바 꺾은 응우옌 반 씨에우(Nguyen Van Sieu 阮文超, 호는 方亭)를 비롯한 당대의 저명한 문사들과 접촉하면서 학문적 안목을 넓혀 갔다.

그는 진지한 선비라기보다는 분방한 재사였다. 시인, 또는 문학가 카오 바 꺾에 대한 글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는 카오 바 꺾의 성향을 가늠하게 하는 얘기가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카오 바 닛(Cao Ba Dat 高伯達, 꺾의 쌍둥이 형)과 카오 바 꺾 형제를 두고 “닛은 너무 형식에 얽매이고 꺾은 너무 법도에서 자유롭다”고 탄식했다는 내용이다(Nguyen Tai Thu 1980: 38). 여기에서 느껴지듯이 카오 바 꺾은 분방한 문학적 재능 및 감성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면모는 유능한 관리가 되기에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뛰어난 문학적 재능으로 말미암아 향시에는 합격하지만(1831년), 회시에서는 연거푸 3회나 떨어지고 마침내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과거 시험 실패가 이런 경우 흔히들 예상하듯 당시 과거제도가 문란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향시 1회와 회시 3회 모두 민 망 황제 치세에 치렀는데, 민 망 시기는 과거 제도가 온전히 체계를 갖추고 있던 때였다. 그러나 오히려 온전한 제도였기 때문에 과거는 꺾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과거란 일정 부분 지배층 또는 중앙의 권력자와의 타협



을 당연시하는 제도여서 조정에서 정한 규칙, 예를 들어 문체라든가 정책 방향, 역사 인식 등을 받아들일 자세가 된 자에게나 성공이 주어진다. 문학적 재능은 뛰어나나 정해진 규범을 준수하길 기질적으로 싫어하는 꾀이 과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향시 합격도 무난하진 않았다. 애초에 2등으로 향시에 통과되었지만, 중앙 조정의 답안지 검토 결과 그에게는 최하위의 등위가 주어졌다(『大南正編列傳二集』, 46:14b).

하지만 그의 문학적 재능에 대해서는 「역신열전」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나 향시 이후 “그의 문장은 날로 발전하여 토 쓰영(Tho Xuong 壽昌)의 부방(副榜) 응우옌 반 씨에우(Nguyen Van Sieu)와 이름을 나란히 하니, 많은 사람들이 공경했다”(『大南正編列傳二集』, 46:14b)고 한다.

재주가 있는 자로서 향시 통과도 꼭질이 많았고 회시 합격은 더더욱 불가능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견 당시 조정 측의 북부 사인 길들이기 사례로 볼 수도 있겠다. 능력이 비슷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함께 받던 응우옌 반 씨에우와 까오 바 꾀 중 응통성 있게 처신한 씨에우는 회시에서 부방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지만 도도한 꾀은 향시 통과조차도 순조롭지 못했던 것이다.

민 망 황제가 북부를 순행하면서 북부 사인들의 정권 참여를 호소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까오 바 꾀에 대한 민 망 조정 측의 완강함은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민 망 조정의 본질은 여기에 있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 호소는 하되 무작정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까오 바 꾀의 모습에서 북부 사인의 면모 또한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줄곧 실패를 하면서도 세 번이나 연속해서 회시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출세 지향적인 모습이다. 물론 연속적인 실패

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기개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기실 회시 합격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기개라기보다는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 비타협은 까오 바 꺾 개인의 독특한 성격일 뿐이다. 그런데 이 성격을 견어 내면 야심만 남는다고 본다면 무리일까? 과거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민 망 초기에 향시에 합격해 거인(擧人) 자격을 획득하면 적어도 지방의 지현(知縣) 자리는 보장이 되며 그렇게 승진하다 보면 6부의 상서 등 중앙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시 합격을 통한 ‘빠른 길’을 고집한 것은 까오 바 꺾 내지는 당시 북부 사인들의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입사(入仕)의 욕망은 민 망 사후 조정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대로 드러난다. 민 망의 뒤를 이어 즉위한 티에우 쯔(Thieu Tri 紹治, 1841-1847) 황제는 그 해 꺾을 예부의 행주(行奏)로 임명했다. 중앙 조정의 부름을 받은 그는 지체 없이 이를 받아들여 경사로 올라갔으며 그의 관직 생활은 바야흐로 성공을 향해 달리는 듯 했다. 회시는 합격하지 못했으나 자신의 재질이 황제의 눈에 띄어 중앙 예부의 모든 상주문을 관할하는 주요 직책으로 임명된 것은 그의 자존심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해에 그로 하여금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일이 생겼으니 그것은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트아 티엔(Thua Thien 承天) 부(府)에서 행해진 향시의 일차 채점관(初考)에 임명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과거 시험 답안지에 손을 댄 것이다. 그의 열전에는 “꺾이 동료 판 응아(Phan Nga 潘迓)와 더불어 몰래 등불의 그을음을 갖고 사인(士人)의 문리(文理) 24권(卷)을 늘려 고쳐 이로 인해 합격한 자가 5명이었다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부 키에우(Vu Khieu)는 꺾이 그의 동료와 더불어 고친 것은 휘자(諱字)였는데, 답안의 내용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휘자를 범한 몇몇 답안지들을 안타깝게 여겨 이런 행동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조정이 인재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은 것들에 연연하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고 주장한다(Vu Khieu 1987: 143).

부 키에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휘자를 범하는 경우 죄를 입어 아까운 인재가 전도가 막힐 경우를 염려했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자신이 재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휘자 때문에 좌절감을 맛보아야 할 수험생들에 대한 연민의 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휘자는 모두 응우옌 왕조 내지 그들의 조상이 되는 남부 응우옌 가 인물들과 관련된 것이다. 부 키에우 말마따나, 북부 사인 입장으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휘자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응우옌 왕조 시기에는 예를 들어 민 망의 첫 부인 호(胡)씨의 이름이 호아(華)라고 해서, 그리고 머느리를 사랑한 자 룡 황제가 특(實)이란 이름을 하사했다고 해서 이 글자도 휘자가 되는 바람에(최병욱 2003: 166) 널리 쓰이던 지명들을 바꾸고(예를 들어 ‘淸華’를 ‘淸化’로) ‘實錄’을 ‘寔錄’이라 표기하는 궁여지책이 나오는 등 휘자가 과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다. 재주보다는 휘자를 범하지 않은 안전하되 평이한 답안 작성자가 합격됨을 막고자 한 그의 행동은 한편으로 보면 나름대로 조정에 대한 혹은 천하에 대한 충정일 수도 있겠으나 조정의 규정을 농락한 오만으로 해석될 수 있었음도 분명하다. 『열전』에 의하면, 이 행동이 알려지게 되어 사론이 비등하고 과장 책임자가 이를 규탄하여 사안이 황제에까지 올라가 사죄(死罪)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황제는 “꺾 등은 멋대로 하여 만족을 얻고자 망령된 짓을 하였으나 [조정을] 꺾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 즉 행동의 동기는 개인적인 것으로 돌리고 황권 또는 조정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아주 적절한 진단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지 관리로 있으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던 중앙 조정에 진입한 까오 바 꺾이 조정을 꺾고자 하는 생각은 분명 없었을 것이다. 단지 개인적인 성과와 자기 재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감이 적당히 섞여 나타난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황제의 결정으로 그는 구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곧 감형되었고, 자신의 세계관을 확대하는 큰 기회를 잡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 서양 세력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 각지를 여행하게 된 것이다(1843년).

매년 동남 아시아 각지로 대형 범선을 보내 무역하게 하고 현지 정세를 탐지케 하는 관선무역(官船貿易)에는 항상 젊고 유능한 유가 관리들이 승선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관선 여행은 수개월이 걸리는 장기의 고된 출장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젊은 유가 관료들로 하여금 이 해양 출장으로 죄를 씻으라는 명분(洋程效力)을 주어 파견하게 된다. 이 여행에 파견된 인물로서, 판 타인 잔(Phan Thanh Gian 潘清間), 리 반 푼(Ly Van Phuc 李文馥), 판 후이 쭈(Phan Huy Chu 潘輝注), 하 꾸엔(Ha Quyen 河權)과 같이 훗날 응우옌 조정에서 성공하는 관리들이 많았다. 그만큼 ‘양정효력’하게 하는 일은 황제로선 능력 있고 장래가 촉망된다고 판단되는 젊은 관리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다. 새로운 문물 경험을 통해서 견식을 높이고 보고 들은 것들을 베트남 지식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이 젊은 유사들이 조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 따라서 까오 바 꺾이 양정효력을 가게 된 것은 황제가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고 그의 장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컸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여행 이후에도 그에게는 화려한 관운이 금방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다. 돌아오자마자 다시 예부에 보임되었으나 한직에 불과했고, 이에 실망한 그는 하노이로 돌아갔으니 환로에 오른 지 고작 2년만

의 귀향이었다. 현재 하노이의 쪽 바익(Truc Bach 竹白) 호수 근처에서 몇 년간을 살았는데, 잘 나가는 관직을 버리고 강호로 은둔하겠다고 내려 온 것도 아닌 바에야 그의 생활이란 것이 마냥 유유자적한 것은 아니었다.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또한 아니었다. 이때 나이가 32세이니 아직 출세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기는 너무 젊기도 했다. 응우옌 반 씨에 우나 쩐 반 비(Tran Van Vi), 지엠 쑤언 후옌(Diep Xuan Huyen) 등과 같은 당대의 문사들과 어울리며 시국을 토론하고 시작에 몰두하며 세월을 보낸 것이 바로 이때였다(Vu Khieu et. al 1976: 26). 그로선 지적인 풍요로움은 즐겼을 것이나 생활 자체는 매우 힘들어서, 종종 먹을 양식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가난과 병고에 시달린 때이기도 했다(Vu Khieu et. al 1976: 26).

4년 뒤 1847년 티에 우 쩌 황제가 사망하던 해 그는 다시 조정에서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는다. 잠시 중남부의 원직(遠職)으로 나갔다가 경사로 돌아가 일하게 된 곳이 한림원(翰林院)이었다(Nguyen Tai Thu 1987: 52). 그러나 맡은 일이란 것이 까오 바 꾀의 자존심을 극도로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가 한 일이란 황제나 신하들이 지은 시문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까오 바 꾀는 당대의 걸출한 시인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씨에우(阮文超)는 신(神)이고 꾀(高伯适)은 성(聖)(than Sieu thanh Quat)” (Vu Khieu et. al. 1976: 7)이라고 했으며 “문장은 씨에우와 나란히 하나 꾀의 문장은 적어도 전한(前漢) 대에는 비교할 만 한 자가 없다(文如超适無前漢之語)” (『大南正編列傳二集』)는 말까지도 있을 정도였다. 시라고 하면 천하제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을 그가 자신으로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을지도 모를 황제나 주변 신하들의 시문 정리나 하고 있다는 현실이 답답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재위에 있던 황제 트 득(Tu Duc 嗣德, 1848-1883)은 대단히 시작을 즐겼던 인물로서 “재위 36년 동안 한 일이

라고는 시 지은 것과 나라 잃은 것밖에 없다”(Vu Khieu 1987: 162)고까지 평가되는 인물이다. 아마도 이런 또 득의 취향 덕분에 시인 까오 바 찻이 한림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겠지만, 말은 일 내지는 직급이란 것이 까오 바 찻의 성에는 영 찰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황제로서도, 문재만 있다고 해서 그를 중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또 득이나 주변, 신하들의 판단으로 보건대, 일정 수준의 행정 능력 및 원만한 대인 관계가 필수이건만 까오 바 찻에게는 그러한 면이 부족했다. 상급자들을 조롱하고 황제의 시문을 노골적으로 비판까지 하는 찻의 돌출적 행동도 황제의 경계심을 자극했다(Le Tam 1950: 18-19; Nguyen Duy Dien 1952: 6). 하지만 찻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능력을 몰라주고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는 황제에게 원망스런 마음이 들면서 황제 및 조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음이 분명하다.

한 예술가가 세속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시작에만 몰두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없었을 것이나 그의 성공에 대한 집착은 예술혼만큼이나 강했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을까? 우드사이드의 지적대로 찻은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충분히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사람이었기에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Woodside 1988: 225)고 여기는 것도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1850년, 41세가 되던 해에 그는 하노이와 인접한 썬 떠이(Son Tay 山西) 성 국위부(國威府)의 교수(教授)로 임명되었다. 교수란, 성(省)과 현(縣)의 중간에 위치한 행정 단위인 부(府)의 교육을 담당한 관리로서, 정7품에 해당한다. 나이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벼슬일 수도 있겠으나 시작에 몰두하고 안빈낙도한다면 그다지 나쁠 것도 없는 직책이다. 그러나 『열전』에서 지적한대로 그는 “재주와 명성을 자부함에도 하위직에 얹드리니 울분이

가득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마침내 자리를 버리고 고향 박닌으로 돌아갔다(1853년).

실록의 기록이 아무리 역신들에게 적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울분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우드사이드는 까오 바 찻에 대해 논하면서 국위부 교수 시절 그의 답답함을 드러내는 심회를 그의 작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 적이 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소수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는 나,  
 금<sup>1)</sup> 한 조각 반의 봉급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썰렁한 삼 칸 집 안에는 선생 하나, 하녀 하나, 암개 한 마리,  
 그리고, 사람 같기도 하고 멍청이 같기도 하고 원숭이<sup>2)</sup> 같아도 보이는 학생들 몇 명.  
 나는 위태로운 내 두 다리를 묶고 내 자신을 물고기 망에 집어넣는다(tra vao ro).  
 망설임을 떨쳐버리고(글자상으로는 속을 다잡고 “rut ruot”) 밥값을 갚기 위해서  
 (“tra no com”) 세상으로 나간다.<sup>3)</sup>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군자의 삼락(三樂)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반대로 마음에 차지 않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는 일만큼 절망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이다. 형편없는 봉급은(상대적이지만) 기분을 더 상하게 한다. 금기야 이런 심정은 핏기 없이 멍청히 앓아 있는 학생들이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 느낌을 들게 하는데, “사람 같기도 하

1) 여기서 금이란, 당시 관리들이 봉급으로 받았던 벼의 색을 염두에 두고 금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Le Tam (1950), p. 25.  
 2) Le Tam은 이 시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원숭이 (khi)가 아니라 ‘우어이 (uoi)’로서 오랑우탄이다. 별 차이가 없는 듯하여 우드사이드의 번역을 그냥 따랐다.  
 3) Pham The Ngu. *Viet Nam Van Hoc Su Gian Uoc Tan Bien: Van Hoc Lich Trieu: Viet Van*(베트남文學史間約新編: 歷朝文學: 越文), Saigon, 1963. p. 441. Alexander Woodside(1981), p. 230에서 재인용.

고 멩청이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아도 보이는 학생들 뗏”이라는 구절이 야말로 절망감의 극치이다.

하지만 그는 학생만을 원숭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자기만 인간으로 남는 이기적인 스승은 아니었다. 원숭이 같은 형편없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신 역시 변변치 못한 존재로 이미 비하해 놓고 있다. “썰렁한 삼 칸 집안에는 선생 하나, 하녀 하나, 암캐 한 마리”라는 구절은 제자들이 원숭이가 되는 필연적 전제이다. 하녀나 개와 더불어 한 공간에 위치시킨 선생(자신)은 생각 없이 사는 멩청한 하녀나 개와 동격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개 앞에 배우겠다고 앉아 있는 학생들을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기실 큰 교만은 아니다. 그러나 분노는 선생을 개로 만들고 학생을 원숭이로 만든 이들에게 돌려진다.

그래서 이 시의 후반부는 분노가 폭발한 행동의 암시일 수도 있다. 우드사이드는 “내 자신을 물고기 망에 집어 넣는다”란 표현은 자신의 자유가 희생될 것을 예견하는 것이고, “밥값을 갚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구절을 찢이 반란 결심을 상징화 한 표현이라고 단정한다 (Woodside 1981: 230). 그러나 개나 원숭이가 인간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이다. 찢의 눈에 이미 분노의 대상자들은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그는 종종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시를 읊곤 했는데, 분노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그의 심리적 적대감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산에 올라가 문학을 논함은 원숭이들 [제자들이 아니라 진짜 원숭이]이라도 듣게 하고자 함이나 산 아래는 [원숭이조차 없으니] 누구 더러 들으라고 문학을 논할 것인가(Le Tam 1950: 22)?”

1853년 그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고향 박 닌 성 푸 티로 돌아갔다. 여기서 그는 반란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때 변방에 청나라 비적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마침 메뚜기 피해로 인해 민심이 피폐해진데다가 레 주이 르(Le Duy Cu 黎維程)라는 이가 스스로 레(Le 黎) 황



실의 후예라고 주장하니 꾀은 그를 추대해 맹주로 삼고 자신은 국사(國師)가 되었다. 자신이 교수로 있던 썬 떠이 성으로 들어가서 근거지로 삼고 하노이로 올라가며 관병과 여러 차례 접전을 펼치다가 진중에서 전사했으며 그의 머리는 잘려져서 북부 제 성에 들려진 후 가루로 갈려져 강물에 버려졌다는 것이 반란의 경과에 대한 『열전』의 기술 내용이다.

제도권 속에서 좌절을 거듭하던 이 북부의 유사가 오른 관직의 끝은 국위부의 교수였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은 천재는 반란을 기도했고 반란군에서나마 자기 스스로 ‘권력 집단’의 제2인자에 오를 수 있었으니 권력의 핵심부에 다가가려던 그의 끊임없는 욕망은 어쨌든 성취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까?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커서 재주의 근원이 되었던 두골(頭骨)은 갈려서 한줌의 가루가 되어 물고기 밥이 되었고 육신을 나눈 일족(아내와 두 아들을 포함)은 주멸(誅滅)되는 화를 초래했다. 그와 쌍둥이로서 별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고 향시에 합격한 이후 관직에 올라 당시 중부지역의 한 지현(知縣)으로 있으면서 선정으로 명망을 쌓아가던 형 까오 바 닷(Cao Ba Dat 高伯達)은 체포되어 소환되는 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大南正編列傳二集』).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까오 바 꾀의 반란에는 그의 개인적 좌절감이 크게 작용한다. 물론 이는 『열전』에서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좌절감이란 매우 상대적이다. 우드사이드가 말한 대로 그는 “성공했으되 매우 성공적이지는 않은” 인물이었으며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한 데서 오는 상대적 좌절감이 반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그가 북부 사인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조정은 북부 사인을 포섭했고 다수의 사인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조정의 포섭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었고 선별적인 것이었으며, 이런 선별에 들지 못한 자들의 불만은 북부 사인들 사이에 저류했을 것이다. 불만이 적개심으로 전환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

더라도, 이런 개인적 불만 내지는 적개심이 반란으로 바로 전환되기는 힘들다. 개인적 좌절감 및 그에 따른 적개심에 불을 붙이는 요소는 더 있어야 한다.

### Ⅲ. 하주(下洲) 경험

카오 바 찻에 대해 일찍이 깊이 있는 연구서를 선보인 응우옌 타이 트(Nguyen Tai Thu)는 1843년 카오 바 찻의 하주 여행이 그의 사상 및 인식 체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Nguyen Tai Thu 1980: 50). 필자 역시 이런 추측에는 동감이다. 도서부 동남아 지역에 매년 관선대(官船隊)를 파견한 하주공무(下洲公務)를 민 망 시대부터 시작된 조정의 적극적인 해외 정세 탐지, 정보 수집, 선진 물자 구입 등의 활동으로 이해한다면(최병욱 2000: 165), 하주 여행이 카오 바 찻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이 반란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장에서는 수집해 보고자 한다.

하주와 관련된 카오 바 찻의 글들은 1971년 사이공에서 출판된 그의 대표적인 작품집 *Cao Chu Than Thi Tap*(高周臣詩集 \* 周臣은 찻의 字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하주잡시(下洲雜詩)’라든가 ‘홍모화선가(紅毛火船歌)’ 등 여행 중에 보고들은 바를 적은 작품들을 남겼다. 그러나 작품의 수는 많지 않고, 언뜻 보기에는 관찰한 대상에 대한 치밀한 기술이나 심각한 고민의 흔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자연, 경관, 여성, 남녀 관계 등에 관련된 내용들로서, 이국취향으로 그득한 아름다운 시로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선 때이 성 출신인으로서 10 여 년 전에 하주를 여행하면서 자세한 기록(『海程志略』)을 남긴 판 후이 쭈와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국의 문물에 대한 지적 태만에 대해 실망감까지 느껴질 정도이다. 또한 지극히 상징적인 시어로 가득 찬 하주에 대한 그의 기술은 비록 뛰어

난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해외 여행의 소중한 기회를 문학적 유희로 소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예를 들어 ‘하주잡시’에 “꽃 같은 서양 여자가 수레에 올라타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 손을 [내밀어] 끄니 유명하듯 밝게 빛난다” 같은 대목으로서, 이국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힐끔거리는 경박한 젊은 유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홍모화선가’에서 기선은 단지 시작(詩作)의 대상이지 경이의 대상이 이미 아니다. “미친 듯 달리는 말(馬)과 같은데 노도 없고 미는 사람도 없다 [……]”는 표현은 “높은 연기가 푸른 하늘을 꿰니 구름이 만들어져 백 척이 쌓였다. 아리따게 드리우기가 천룡(天龍)과 같으니 북두성 바람이 불어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장엄한 시를 보완하는 보조 묘사인 듯 하다. 이에 더해 ‘양부행(洋婦行)’에서는 술잔을 들고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앉은 백인 여성의 사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하면, 박물학자적 면모를 갖고 있고 진중하기 그지없는 판 후이 쭈와 도도하고 직선적이고 감성적인 시인 까오 바 꺾은 관심의 분야나 표현의 방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판 후이 쭈의 하주 여행은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동안 하주에 대한 기록은 매년 축적되어 왔으며 관선무역을 통하여 줄곧 서구의 상품들이 수입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서양인들의 생활, 제도, 복식, 교역 및 기선을 비롯한 근대적 물자들에 대해서 기술적(記述的)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까오 바 꺾에게는 따분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베트남은 이미 기선을 수입해서 분해 조립까지 해 보고 있을 정도였으니(최병욱 2000: 181-184) 기선 그 자체가 까오 바 꺾에게 새로워 보일 리는 없었다. 또는 이미 알고 있다는 자존심이 그로 하여금 호기심 어린 진지한 기술 대신 풍류적 시화(詩化) 작업에 몰두하는 척 하게 했을 것이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듣고 보고 있던 선진 문물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가운데 그가 경험했을 충격이다. 애써 진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지라도 워낙에 감성이 풍부한 까오 바 찻이었기에 싱거운 한량의 관심사들뿐인 것 같은 그의 시 곳곳에 충격의 자취들을 흘리고 있다.

‘홍모화선가’에서, 영국의 화륜선이 자신이 탄 배 근처를 지나자 “키를 잡은 이들이 놀라 일어나고 수부들이 늘어서서”이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술한다. 자신 역시 “옷을 부여잡고 동쪽을 바라보니 그것은 바로 양인(洋人)들의 화륜선인데 비스듬히 다가오고 있었다. 높은 담장이 우뚝 서 있는 듯한데 닷 냥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듯 가벼워 보인다”고 하며 실제 바다에서 운행하는 화륜선의 위용에 압도당하고 있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하주잡시’에서도 “누각이 겹쳐 있어 물나루에 닿았으며 소나무 그늘 대치 곳곳은 기이한 꽃들로 봄을 이루었다”고 바타비아의 풍경을 노래하면서도 말미에 “오인어백인(烏人駁白人)”라고 덧붙임을 잊지 않는다. 표현 그대로 해석하자면, “검은 사람(원주민)이 흰 사람을 부린다”는 말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바타비아에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는 아마도 까오 바 찻이 종종 과시하던 수사적 유희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말이나 소를 부릴 때 사람은 뒤에서 조종한다. 하지만 그것은 뒤에서 부리는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서 앞서 가는 동물의 걸음 방향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수레를 끌든가 밀든가 하여(대부분의 경우에는 끌지만) 흑인이 백인을 수레에 태우고 다닐 때 수레라고 하는 탈 것에 백인들을 넣고 조종하는 주체는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이 백인을 몬다”는 익살을 부렸다. 깊은 연민을 이렇듯 장난스러운 방법으로 암시한 것이다.

‘양부행’에서 서양인 부부의 다정한 한 때를 그리면서 ‘어찌 남인(南人 베트남인)의 별리(別離)를 알겠는가?’라 물은 것을 일찍이 부 키에우는 아내 사랑이 극진했다고 알려진 까오 바 찻의 인간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사례로 인용한 바 있다(Vu Khieu 1987: 136). 그러나 이 기사는 까오 바 찻의 사회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방(異邦)에서 부부 동거가 가능한 여유 및 그것을 가능케 하는 풍요로움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었을지. 아니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유교 사회와는 크게 다른 남녀 관계에 대한 역설적 찬양이었을 수도 있다. 서양의 남녀 관계에 대한 호기심은 일찍이 판 후이 쩌의 기록에서도 나타났는데, 수레를 타고 내릴 때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아 주는 배려라든가 사교 활동에서 여성이 적극적임을 들어 남성이 여성을 귀히 여긴다는 내용들이다(潘輝注: 198). 남녀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심화될 대로 심화된 북부(4) 출신의 젊은 유학자들에게 상호 존중이 두드러져 보이는 서양인들의 남녀간 예절은 대단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다. 남녀 관계로 상징되는 평등한 인간 관계라든가 서양 사회의 여유로움은 그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음이 분명하다.

뛰니뛰니 해도 하주의 경험 및 그 결과에 기인한 입장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 있는 글은 ‘변혹론서(辨惑論書)’이다. 여기서 까오 바 찻은 대단히 흥미로운 대화 형태로 당대의 뜨거운 논쟁을 소개하고 자신의 입장을 교묘한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주장 전개 방식이 하도 역설적이라 자칫 그의 주장이 실제와는 정반대로 이해되기도 한다. 자세히 이 글을 살펴보면서 까오 바 찻의 성향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이 글은 제목부터가 상당히 모호하다. ‘혹론을 반박하는 [또는 분별하는] 글’이란 뜻인데 과연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혹론’이란 어떤 내용이

4)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병욱, 「19세기 남부베트남의 여성상: 음탕함과 그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13(1), pp. 170-171 참조

며 누가 이를 주장하는 것일까? 또 그 어떤 주장을 ‘혹론’이라고 규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등이 얼른 드러나지 않고 독자의 호기심만을 자극할 뿐이다. 우선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소치원년(紹治元年) 서양으로부터 돌아온 객(客)이 있어 양화(洋貨)의 기묘하고 정교함을 이야기하는데, 극단적으로 말해 중국에도 일찍이 없던 것이라 했고 앉아 [듣고] 있던 자들이 떠들썩하게 칭찬하더라.

여기서 소치 원년이라 하면 1841년으로서 민 망 황제 재위 시기 마지막으로 하주에 보냈던 관선을 타고 다녀 온 이가 객으로 설정되었다. 이 사람이 전하는 외국의 문물에 대해 듣고 있던 이들이 모두 그 선진성을 칭찬하더라는 표현으로써 당대 일반인들의 서양에 대한 호기심을 전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대 인물(anti-these) 모(某)의 등장은 외국 문물에 대한 경도의 경향성이 하나같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저항자의 존재는 서구 물자의 압도적 우월성에 대한 당시의 관념을 훼손하지 못하며 그것은 객이 조목조목 제기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이 인물의 대답 및 다시 그에 대한 객의 질책에서 논쟁은 간단히 승부가 나며, 이렇게 하여 까와 바 꿇은 자신의 견해를 간단하게 드러내는 듯하다.

모(某)가 홀로 말 없이 다른 곳을 돌아보고 있으니 객이 말하길 ‘자네는 어찌하여 서양을 질시하는가? 마지(馬地) [말레이지역]의 백 가지 기교로움과 亞而 [A Nhi, 인도네시아지역]의 삼절(三絶)을 자네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대] 보았을 화륜선이라든가 신형 소총을 그대는 능히 만들 수 있는가? ‘못하오.’ 천리경은 만들 수 있는가? ‘못하오.’ ‘서양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네는 하지 못하는데 왜 양인을 질시하는가?’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모의 만만치 않은 반격을 읽어보면 독자는 ‘혹론’을 늘어놓은 것은 객이고 모가 혹론을 분별하는 주체라고 이해하게 된다. 실제로 ‘某’라고 하는 한자 단어는 ‘자기의 겸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의 베트남어 번역본에서도 ‘某’를 ‘나(toi)’로 번역했다. 곧 이어지는 某의 장황한 변설은, 곧 까오 바 꺾의 주장으로 이해되며 그는 객의 혹론을 반박하는 수구론자 또는 폐관(閉關)론자가 되는 것이다.

대답하기를: 양인을 질시하는 게 아니라 양인으로부터 질시 받을까를 걱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생긴 이래, 교묘한 것으로 친다면 하도(河圖) 보다 더 한 것이 없는데 우리(我) 희황(羲皇) 복희(伏羲) 황제가 측량했다. 기교로 친다면 낙서(洛書) 보다 더 한 것이 없는데 성스러운 우왕(禹王)께서 서술한 것이다. 선기사정(璿璣士政)은 지극히 기교로운 것인데 대순(太舜)이 먼저 했다. 병거지남(辨車指南)은 지극히 정교한 것인데 주공(周公)이 그것을 만들었다. 밭 갈 때 쟁기를 사용하고 사냥할 때 그물을 사용하며 오곡을 먹고 포백으로 옷을 해 입으며 궁실에서 거하고 [……] 많은 성인들이 이미 한 바이다. 양인이 능히 그것을 하겠는가? 무릇 양인의 기교함은 우리 중국(吾中國)이 하지 않는 것이다. 옛날 성인께서 천하를 다스림에 무리에게 영을 내리시길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말며 무익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르길, 음탕하고 기교로운 짓을 하여 仁心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주살하기도 하였다. 우리 중국(吾中國)이 그 가르침을 지켜 왔으며 그 법을 준수해온 것은 두려워하고 감히 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성명도교(性命道敎)나 복식 기용(器用)은 나에게 있어 못하면 저에게서 취하지 않음이라. 양인의 것들이 있기 전에 우리 중국(吾中國)은 무슨 손해가 있었던가? 이미 양인의 것들이 있는 연후에 우리 중국(吾中國)은 무슨 이득이 있었던가? 우리들을 기교 있게 함이 아니라 [……] 또한 호랑이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를 무서워한다고 했다. 객이 양인의 기교를 기교로 여기지 아니하면 양인 역시 그 기교를 사용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사뭇 정교해 보이는 모의 주장은 사실은 까오 바 찻이 희화화하고 싶은 수구론자들의 주장일 뿐이었다. 까오 바 찻은 ‘뿔’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이 알아채게끔 이미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두었다. 예를 들어 “밭 갈 때 쟁기를 사용하고 사냥할 때 그물을 사용하며 오곡을 먹고 포백으로 옷을 해 입으며…….”와 같은 부분에서 주의력 있는 독자라면 이런 일상적 고안물들이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지적할 것이어서 이미 모가 강변 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든가 대단히 무지한 자임을 알아채게 된다. 더욱이 까오 바 찻이 모를 비꼬는 장치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우리 중국(吾中國)”이다. 즉 모로 하여금 이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가 중국을 마치 제 나라인양 여김을 보여주어 모라는 존재를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중국”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까오 바 찻 자신이 될 수 없었음은 확실하다.

객이 다음과 같이 등장하여 아주 당연한 것을 물어 본다.

그대의 말이 옳은 듯도 하다. 그러나 양인의 기계의 정교함이 있음은 가히 두려워할 만하다. 커다란 증기선 같은 것은 병용(兵用) 하는 사람으로서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만금의 재물을 들여 그 물건을 사고 [가르침] 사람까지 산다면 기술을 가히 얻을 것이고 기술을 얻으면 양인은 두려울 바가 못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모로 하여금 중국의 고사들을 줄줄이 들이대며 반론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이상하도다. 모가 듣기에 예(狻)를 죽이는데 예의 활로써 하지 아니하며, 항우를 잡는데 항우의 칼로써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나라와 초나라를 치는데 진나라와 초나라의 병사로써 하지 않고 제와 양의 대나무 막대기로써 한다. [……] 양인을 근심



하여 양으로부터 취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불가하지 아니한가? 또한, 이미 일러 기 계라 한다면 그 기술은 반드시 비밀일 것이니 비밀인즉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니 만 금을 다 쓴다 해도 오히려 전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는 바이다. [……] 모가 한 말을 갖고 객이 양인들에게 말한다면 양인들은 반드시 웃으면서 ‘기교롭다, 교묘하다’ 할 것이다.

까오 바 꺾은 이 글에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고사와 사례 그리고 날카로운 듯 해 보이는 논리로 서양 것을 찬양하는 客을 비판하고 있음은 그만큼 客과 같은 입장이 매우 두꺼운 여론 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까오 바 꺾 자신이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비판자와 비판의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논리 정연한 고루함이야말로 당대 까오 바 꺾의 자유로운 기질을 속박하는 요소였을 것이며 까오 바 꺾의 적대감은 이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다.

‘辨惑論書’의 도입부에서 까오 바 꺾은 ‘소치 원년’, 즉 1841년의 일이라고 했으나 이 년도가 이 글을 쓴 해는 아니다. 까오 바 꺾은 소치 황제가 등극하던 바로 해에 수도로 올라 와서 처음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해 서양 세계를 관찰하고 돌아온 이들의 기술(記述)을 직접 경험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1841년의 기억을 더듬은 형식으로 보아 이 글은 1841년 이후에 씌어진 것이며, 까오 바 꺾이 객의 입을 빌어 소개하는 화륜선이라든가 신형 조총 등 선진 문물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치밀하게 구성된 이 논쟁의 추이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자신이 2년 후 하주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

하주 경험이야말로 까오 바 꺾에게는 중국 및 중국적인 가치에 경도되어 있던 집단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을 겨눌 수 있게 된 실질적

근거가 아니었을까?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정점에는 또 득이 있었다.

#### IV. 또 득(Tu Duc 嗣德, 1848-1883)의 정통성 문제

이 글의 도입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응우옌 왕조 시기 조정에서 북부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했고 이 작업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 때문에 북부 사인 까오 바 찻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매우 의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우대’와 ‘반란’ 사이의 모순 되어 보이는 이 인과 관계가 납득할 만한 관계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민 망 시기인 19세기 전반과 까오 바 찻이 반란을 일으키는 19세기 중반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민 망 시기 절정기를 맞았던 베트남은 19세기 중반부터는 적어도 까오 바 찻을 비롯한 불만 분자들에게는 일정의 충격을 가하면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입증할 만한 많은 요인들이 있다.

그런데 필자는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황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부정적인 면모 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을 수집하는 역사적 인과 관계의 소급 적용 방식을 취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추적 방식을 택하고자 하는데, 그 시대 북부인 까오 바 찻의 입장에서 또는 그 배후에 서서 그로 하여금 반란을 선택하게 만들었을 요소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민 망 시기의 융성기를 경험한 까오 바 찻에게 티에우 찌(Thieu Tri 紹治, 1841-1847) 시기를 거쳐 또 득(Tu Duc 嗣德, 1848-1883) 제에 이르러서 국가는 급속도로 쇠퇴하는 듯 싶었다. 특히 1850년대를 전후해서 그 징조는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민 망이 사망하고 티에우 찌가 등극했

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민 망 말기부터 시작되어 격렬해져 가던 캄보디아의 반란이었다. 이에 더하여 남부베트남에서는 민 망 시기에 강력하게 행해졌던 소수민족 동화 정책의 결과로 각종 형태의 소수민족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부왕에 비해서 융통성 있고 온화하나 확대된 제국의 유지는 힘에 부쳐 보이던 이 황제의 재위 기간에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기강 해이 현상이 유난히 많이 나타난다. 이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복잡화된 영역 체제가 민 망이라는 강력한 군주의 개인적 역량에 힘입어 지탱되어 나가다가 그가 사라짐과 동시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상징의 단편(斷片)들이었다. 티에우 쯔 황제가 제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노이 방문을 위해 북순(北巡) 하는 과정에서 응애 안(Nghe An 乂安) 성으로 들어갈 때 황제의 일행은 행차를 알리는 의식으로 예포(禮砲)를 발사했다. 그런데 이에 응해 응애 안의 포수들이 실수로 일제히 포를 난발(亂發)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고(『大南寔錄正編第三紀』 16:2b), 어사 응우옌 응옥 까인(Nguyen Ngoc Canh 阮玉景)이라는 자가 술에 취해 묘전(廟殿)에 난입했다든가 또 다른 궁정 관리가 숭은전(崇恩殿) 뜰에서 술주정을 하면서 마구 떠들어대는(『大南寔錄正編第三紀』 9:3b) 해괴한 일도 이즈음 터져 나왔다. 심지어는 능지기 하나가 능에 비치되어 있던 어산(御傘)을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빌려준 일(『大南寔錄正編第三紀』 9:7b)이며 1843년에는 서리(書吏) 하나가 구리 14량과 은 6량을 섞어 만든 궁궐 내 촛대를 내다 팔아먹은 일까지 생긴 것을 계기로 관물(官物)을 몰래 내다 파는 일을 금지하는 조례(“盜賣官項條禁”)까지 정해질 정도였다(『大南寔錄正編第三紀』 35:8b-9a).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실의 창고인 무고(武庫)에 도둑이 들었고(『大南寔錄正編第三紀』 38:19), 여관(女官)이 궁내의 황금 그릇을 도둑질했으며(『大南寔錄正編第三紀』 38:22), 황제의 집무처인 근정전(勤政殿)에 보관하고 있던 황실의 전래 보물 영룡금검

(靈龍金劍)을 도둑맞았는데 소동 끝에 칼은 찾았으되 황금 장식이 되어 있던 칼집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大南寔錄正編第三紀』 41:5b). 공주가 탄 가마가 황제의 어가(御駕)를 가로질러가고 그녀의 노비가 칼을 차고 가마를 수행하며 따라 지나갔는데 황실의 호위 무관이 불러도 오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자 이를 보고 있던 내관(內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사건들도 발생했다(『大南寔錄正編第三紀』 26:13). 이런 일들은 선대 민 망 황제나 그 이전 자 롱 황제의 『실록』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베트남은 1846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철수했으며 5-6년에 걸친 캄보디아에서의 전쟁과 남부베트남에서의 소수민족 반란으로 인해 남부는 극도로 피폐되었다. 남부의 잠재력으로 인해 남부경제는 급속도로 회복은 되어가고 있었지만 적어도 캄보디아에서의 철병은 영토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까지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 조정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티에우 쯤의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847년 다낭을 방문한 프랑스 함선들이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충돌로 말미암아 폭격을 시작하였고 베트남 수군들이 이에 응전했다. 이 전투로 말미암아 베트남 측은 대다수의 대형 전선들을 상실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역시 조정의 외교 및 국방력을 의심케 하는 큰 사건이었다.

뜨 득 황제가 즉위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우선 황제는 정통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부왕 티에우 쯤 황제는 죽음에 임해 4인의 권신들—쯔엉 당 꾸에(Truong Dang Que 張登桂), 럼 주이 히엵(Lam Duy Hiep 林維浹), 보 반 자이(Vo Van Giai 武文解), 응우옌 쯤 프엉(Nguyen Tri Phuong 阮知方)—을 고명대신(顧命大臣)으로 불러 들였는데, 황제 사후에 이들 네 명은 1자 홍 바오(Hong Bao 洪保) 대신 2자 홍 님(Hong Nham 洪任)이 제위를 계승하는 것이 황제의 뜻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로 사론이 비등하여 새 황제의 지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조정에서의 분열상도 심각했다. 흥 바오를 제위에 앉히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이는 흥 바오의 역모 사건으로 표면화되어 흥 바오를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처형되는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흥 바오의 역모 사건은 까오 바 꺾이 반란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인 1853년에 일어난 것이니 까오 바 꺾의 입장에서 또 득의 권위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추락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또 득의 즉위 과정은 지역 정서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우선, 장자가 배제되고 흥 념이 선택된 데는 네 명의 고명대신 중 리더격으로서 흥 념의 장인이었던 쓰영 당 꾸에(張登桂)의 농간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sup>5)</sup> 특히나 4인의 권신은 모두 중부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했다. 이미 남부의 지역 감정은 레 반 코이 반란의 진압과 그 뒤를 이은 남부의 교화 작업으로 인해 무시할 만할 정도로 약화된 상황이 되었지만 남부를 내지화 하는데 협조한 북부인과 중부인 사이에는 또 득의 즉위를 전후하여 심각한 정도의 지역적 갈등이 현재화되고 있는 조짐이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조정이 북부인들로부터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 망 황제가 북부 사인을 포섭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 정통성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가 “이 조정이 천하를 취한 것은 본디 떠이 썬(Tay Son 西山)으로부터이지 여실(黎室)의 자손으로부터가 아니었다(『大南寔錄正編第二紀』 199:23b)”라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강박 관념의 표현인 바, 그의 아들 티에우 썬 역시 북순(北巡)의 여정에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다(『大南寔錄正編第三紀』 16:10b). 민 망 자신도 완전한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가 아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자 룡

5) 이 문제에 대해서는, 坪井善明 (1991), 제4장 참조

의 넷째 아들이었던 그는, 비록 위의 세 형이 모두 먼저 사망하는 바람에 황위계승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미 부친의 계승자로 정해졌던 맏형이 남기고 간 조카 즉 ‘황손’과 경쟁 끝에 가까스로 황위에 오른 경우였다. 그러나 민 망은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특출한 재능과 노력 그리고 재위 시 이론 각종의 업적으로 상쇄할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은 티에우찌는 민 망의 장남이고 무난한 자질을 가진 이였기 때문에 황위 계승자로서 하자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또 득은 정통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서도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특히나 대외 관계에서는 극도로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1847년 다 낭 폭격이 있는 후에 티에우찌의 서양에 대한 불신감은 깊어 갔지만 완전히 폐관을 해버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다 낭 항구에서의 무역은 줄곧 허용했으며, 재위 말년까지 민 망 시기부터 계속되어 온 관선(官船)의 해외 파견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또 득은 즉위하는 순간부터 모든 대외 접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 낭 항구에서 서양인의 교역은 금지되었다(『大南寔錄正編第四紀』 1:16).

그는 대단한 열정과 풍부한 정서를 가진 문학도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외 정세에 대응하는 힘 있는 군주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강력한 군주상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남성성(masculinity)’도 극히 미약했다. 150여 명의 자녀를 둔 민 망 황제에 비하면 뒤를 이을 후사도 생산하지 못한 ‘나약한 군주’였을 뿐이다. 또 증부 출신의 권신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 시 짓기나 좋아하는 황제였다. 민 망과 티에우찌가 하노이에서 중국의 책봉 사절을 만나고 그 기회에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의 사인 및 백성들의 인심을 다독이던 것과 달리 또 득은 후에에서 책봉식을 하고 복순을 생략해 버렸음도(『大南寔錄正編第四紀』 1:31) 기억할만하다.

이런 황제에 대해서 북부의 사인들은 호감을 가질 리가 만무하고, 적어도 1850년대부터 북부 사인들은 조정을 미덥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우드사이드는, 당시 한정된 국가의 자원은 수도로 집중되고 지방은 희생되는 형편도 까오 바 꺾이 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소개한 바 있다(Woodside 1971: 226-227). 그런데 이 시에서 우리는 수도와 지방 사이에서의 문제보다 더 구체적으로 수도와 북부 사이의 문제, 즉 북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읽어 낼 수 있다.

<굶주린 남자를 만나다(道逢飢夫)>

구부정히 걷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  
 옷은 찢어지고 갓은 낡아 헤어졌는데,  
 빠른 걸음으로 남쪽으로부터 와서  
 나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탄식한다.  
 그대는 무엇이 근심인가 물으니,  
 “오래도록 어렵고 집안이 빈한하여  
 의술과 복술(卜術)로 먹고 살다가  
 장안[수도 후예]으로 갔더니  
 장안에는 병자가 하나도 없고  
 의원의 무리가 언덕과 산만큼 많더라.  
 어찌할 수 없어 돌아오게 되었는데  
 눈 위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오,  
 두 번째 날에 통이 비었다.  
 삼일 째에는 곡기를 끊었는데

사람을 만나니 기쁘고 기쁨 뿐이어서

말을 하고 싶으나 목소리가 말라버렸다.”

오호라 그대여 눈물을 거두시오

내 밥 한 끼 그대에게 대접하여 기쁘게 하리

(Woodside 1981: 227; *Cao Chu Thxan Thi Tap* 1971: 146-147).

까오 바 찻은 북부인이고 걸인은 수도 후에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라 하니 그 역시 북부인이다. 이 두 북부인의 대화를 통해 수도 후에와 북부 사이에 있는 현격한 부(富)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즉 수도에는 의원들이 차고 넘치며 병자가 없을 정도로 건강한데, 그 수도에서 북부로 하루만 가면 밥통이 비기 시작하고 주립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이 두 북부인은 신세타령과 밥 한 끼 대접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확인한다. 아울러 그 유대감은 풍요로운 수도에 대한 공동의 적대감으로 발전하는 데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사 많은 북부의 사인들이 과거제도 등을 통해서 중앙 정계에 활발하게 진출했다고는 해도 북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19세기의 상황이었다. 천 년여 동안 왕국의 수도였던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물자의 유통이 부진해졌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용 즉 황제의 땅임을 암시하던 탕 룡(Thang Long 昇龍)이란 이름은 일찍이 응우옌 왕조가 들어설 당시부터 폐지되었고 오랜 역사의 중심지는 ‘물 한 가운데 있는 땅’이란 의미의 하 노이(Hanoi 河內)로 바뀌었다. 높은 인구압과 부족한 토지 및 홍하의 잦은 범람으로 19세기 홍하 델타 지역의 형편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왕조 건국 초기, 특히 민 망 시기에는 남부로의 적극적인 이주 정책과 토지 개간, 그리고 국가의 부지런한 수리 시설 보수 작업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쌀이 늘 부족해서 일어나는 미가 앙등에 대



해서도 남부에서 풍부히 생산되는 쌀을 이곳으로 실어 날라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 망 시대가 마감되고서는 이런 제 정책이 거의 사료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북부에 대한 경영이 소홀해진다. 특히 남부 지역이 캄보디아 경영 및 반란 진압, 그리고 소수민족 소요 등으로 피폐해지면서 생산력이 떨어짐에 따라 북부로의 미곡 유통도 원활하지 못했다. 쌀 생산이 회복된 이후에도 남부의 쌀은 북부로 가기보다는 훨씬 수지맞는 시장을 찾아 동남아 각지나 중국으로 빠져나가기 일췌였다.

까오 바 꺾의 시에는 썰렁하고 음산하고 가난한 하노이의 모습이 여기저기 묻어 있다. 이른 아침 싸늘한 안개비가 가득한 들판에서 배고픔을 이기며 논일을 하는 가난한 농민, 옷을 팔아 쌀을 사오는 여인의 처량한 모습, 남의집살이 하면서 하루 종일 매 맞고 욕먹는 인생, 세금을 내지 못해 잡혀가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해 거지가 되는 사람들의 운명 등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그 중의 하나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해저물녘 다리를 건너 돌아오는 여인(暮橋歸女)>

아무리 춥다해도 [그 피로움이] 배고픔만 하겠는가  
 겨[寒] 값이 황금보다 비싸다. 옷을 잡고고 샀다  
 물먹은 차가운 바람이 다리[橋] 위를 지나가지만 추운 줄을 모른다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을 생각할 뿐

(Vu Khieu et. al. 1976: 196)

“겨 값이 황금보다 비싸다”는 이 과장된 표현은 쌀값이 폭등한 하노이의 상황을 보이는 것이다.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이런 곤궁한 상황 위에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켰던 것은 비적들의 발호였다. 1850년대 중국 남부를 휩쓸었던 태평천국운동의 잔당 및 그들과 결합된 중국인 비적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오면서 북부가 소란해졌다. 그러나 『열전』에서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조정은 이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고, 마침 그 해 닥친 메뚜기떼 피해로 흉흉해진 민심이 까오 바 찢으로 하여금 조정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호기로 여기게끔 만들었을 것이다.

## V. 맺음말

까오 바 찢이 반란을 일으킨 동기는 특별히 이것이라고 꼬집어 말 할 만한 것이 없고 다양하다. 반란의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누적된 불만의 폭발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대부분 중앙 조정의 약점과 관련된 것이어서 『열전』과 같은 관찬 사료에 드러내 놓고 기재될 수 없었던 것이다.

반란군이 내 건 깃발에 써어 있었다던 14자의 구호 “평양포판무요순(平陽蒲版無堯舜), 목야명조유무탕(牧野鳴條有武湯)”, 즉 “평양과 포판에 요순이 없으면 명조와 목야에 탕왕과 무왕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현 왕조는 타도한다는 의지가 명확히 담겨 있다.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만든 요소들을 우선 그의 인생 여정에서 찾아 보았다. 가장 큰 요소는 일생 계속된 좌절감이었다. 하지만 그 좌절감을 증폭시켰던 것은 야심이었다. 이 외에도 시인으로서의 낭만성이라든가 자기 과신 등이 반란을 결심하게 만든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천재들에게서 곧잘 나타나는 경박함도 덧붙여질 수 있을 것이다. 하주 경험은 까오 바 찢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근대 문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였으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조정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켰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 이 젊은 지식인이 국가 경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황제의 시문이나 정리하고 일개 지방의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나 맡아야 하는 현실은 그에게는 극히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반란의 대상이 되었던 뜨 득의 정통성, 급속도로 가시화되는 북부의 빈곤과 그에 따른 박탈감 등도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제 요소들이 까오 바 찻만이 아닌 북부의 유사들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 망의 노력으로 많은 북부 인사들이 새 왕조에 적극 참여하긴 했지만 적어도 북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사 이래 가장 정권에서 소외된 시기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하주의 경험은 베트남의 지체성을 인식하게 했고 그 책임은 천하를 책임지고 있는 중부인들에게 돌려졌다. 응우옌 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각각 중부 후예와 남부 사이공으로 옮겨간 이후 북부인들이 느끼게 되는 상실감 및 곤궁함도 북부 사인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엄격한 유교 질서 속에서 이런 불만은 선불리 표현되기 불가능하다. 단지 저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까오 바 찻이라는 참을성 약한 재사를 통해 결국 표출된 것이다.

유교화가 충분히 진행된 사회답게 사건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채 얼른 봉합이 되고 끝나버렸다. 그러나 까오 바 찻에 의해 표현된 북부 유사들의 조정에 대한 정서는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 1859년 프랑스군에 의해 사이공이 접수된 이후 남부 지역이 점차 프랑스군 수중으로 떨어져가고 있을 때 북부를 또 한 번 뒤흔들어 중앙 조정으로 하여금 남부에서의 작전에 병력을 집중할 수 없게끔 발목을 잡은 때 반 풍(Ta Van Phung 謝文奉)의 반란(1862) 역시 이런 정서에 기댄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는 18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근왕운동이 흔히 얘기되듯 ‘베트남 각지’에서가 아니라 중부 지역과 응우옌 왕실의 고향인 타인 호아나

응애 안, 하 띤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데, 북부 유사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던 것은 전통시대 흥하델타 북부 사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당의 활동이라든가 공산당 운동에서는 물론이지만 그 이전 하노이의 통킹의숙를 중심으로 발전한 근대화 운동에서도 입헌운동과 같은, 즉 응우옌 왕조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확산되기가 힘들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대의 지식인이며 매우 드물게 직접 서구 문물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각오했던 이 북부의 유사에게 개혁을 주장한 흔적을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경험과 인식 지평의 확대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불만은 개혁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다짜고짜 왕조 타도 더 나아가 레 조의 부흥 주장으로 표출되었다. 즉 불만이 개혁에의 지향을 가려버렸던 것인데, 이는 까오 바 껏 개인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당대 북부 유사들의 한계이기도 했다.

**주제어:** 까오 바 껏, 하주, 뜨득, 민 망, 북부 사인.

참고 문헌

-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861.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3.
- 『大南正編列傳二集』, 1909.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81.
- 『大南寔錄正編第三紀』, 1894.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77.
- 『大南寔錄正編第四紀』, 1892.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79.
- 潘輝注. n. d. 『海程誌略』 “Récit sommaire d’un voyage en mer”(1833) Phan Huy Le, Claudine Salmon & Ta Trong Hiep 번역, 편집. Paris: Cahier d’Archipel 25. 1994.
- 유인선. 2003. 『새로 쓴 베트남사』. 서울: 이산.
- 최병욱. 2000. “19세기 전반 (1823-1847)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官船貿易” 『東洋史學研究』 71 집.
- \_\_\_\_\_. 2003. “19세기 남부베트남의 여성상: ‘음탕함’과 그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13(1).
- 坪井善明. 1991. 『近代ヴェトナム政治社會史 - 阮朝嗣徳帝通治下のヴェトナム, 1847-1883』.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 Cao Chu Than Thi Tap* (高周臣詩集). 1971. Saigon: Bo giao-duc Trung-tam hoc-lieu.
- Choi, Byung Wook. 2004.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Ithaca: SEAP, Cornell University.
- Cooke, Nola. 1999. “Southern Regionalism and the Composition of the Nguyen Ruling Elite,” *Asian Studies Review*(Brisbane) 23, 2.
- Kieu Oanh Mau 喬瑩懋. 1901. *Ban Truieu Ban Nghich Liet Truyen* (本朝叛逆列傳). Hanoi: Vien Han Nom VHv 2664.
- Le Tam. 1950. *Than The va Su Nghiep Cao Ba Quat* (까오 바 꾀과 그의 사업). Hanoi: Nxb Cay Thong.

- Nguyen Duy Dien. 1952. *Luan De Ve Cao Ba Quat* (까오 바 껏에 대한 論題). Hanoi: Nxb Thang Long.
- Nguyen Tai Thu. 1980. *Cao Ba Quat, Con Nguoi va Tu Trong* (까오 바 껏, 인간과 사상). Hanoi: Nxb Khoa Hoc Xa Hoi.
- Truc Khe (Ngo Van Trien). 1952. *Cao Ba Quat* (까오 바 껏). Hanoi: Truc Khe Thu Xa.
- Vo Xuan Dan. 2003. "Cao Ba Quat, Lanh Tu Khoi Nghia Nong Dan (까오 바 껏, 농민기의 지도자)." *Xua va Nay* No. 154.
- Vu Khieu. 1987. *Nguoi Tri Thuc Viet Nam qua Cac Chang Duong Lich Su* (역사 여정에서의 베트남 지식인들). Ho Chi Minh City: Nxb Thanh Pho Ho Chi Minh.
- Vu Khieu et. al. 1976. *The Chu Han Cao Ba Quat* (까오 바 껏의 한시). Ho Chi Minh City: Nxb Van Hoc.
- Woodside, Alexander Barton. 1981.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 A Study on the Cao Ba Quat Rebellion (1854)

Choi, Byung Woo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three reasons for the revolt.

First reason is inspired by the Hue court's explanation, Cao Ba Quat's dissatisfaction with his lower position than his expectation. But I argue this kind of dissatisfaction is not only due to his ambitious personality but the reflection of the air of northern intellectuals who had been at the centre of power for hundreds years but had to be poorly controlled by the new power centre, Hue in the central Vietnam.

Cao Ba Quat's trip to Ha Chau, a Vietnamese term to indicate Island Southeast Asia regions during the 19th century,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to constitute the second reason to increase his dissatisfaction with the Hue court. He left numbers of poems and verses that show his observations during this trip. Especially, the 'Bien Hoc Luan Thu' (a writing to distinguish a deluding words), which has been wrongly interpreted as the evidence for Quat's conservative idea, is the main text to inform us of his standpoint to criticise the conservatives who blindly praise the traditional world of China in opposing to Vietnam's contact with Western world. New king, Tu Duc (1848-1883) was at the top of this conservative group.

Third reason is Tu Duc's enthronement, which was widely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the conspiracy led by the court power holders from the central region, seems to have weakened the authority of the Hue court among northern intellectuals. In addition, Tu Duc, unlike his predecessors such as Gia Long (1802-1820), Minh Mang (1820-1841), and Thieu Tri (1841-1847), did not seriously concern about securing the support of northern intellectuals. They began to feel isolated from the power. Worse, the northern economy was being deteriorated drastically by the negligence of the Hue court. This situation is well depicted in Cao Ba Quat's poems.

Dissatisfaction among Confucian intellectuals to the king, however serious it is, cannot be the natural source which can be converted to a rebellion especially in a Confucianised society like northern Vietnam of the 19th century. Thus, the revolt of Cao Ba Quat who had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and had served as the court official was an extremely exceptional case. As expected, the revolt could not gain wide support, and was quickly pacified.

But this short-term and exceptional revolt led by Cao Ba Quat was a significant sign of the wide dissatisfaction of the northern intellectuals around the society. It proved later. The comparative silence of northern intellectuals during the process of French operation in pushing out the authority of the Hue court from the northern area, and their continuous tendency not to protect the Hue monarchy during the various anti-colonial and national movements based on the northern Vietnam such as of Dong Kinh Nghia Thuc, National Party, and Communist Party etc. was the reflection of the northern intellectuals' sentiment.



However,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e fact that this prominent intellectual, Cao Ba Quat, did not seek for any kind of way to reform the current situation, but chose a way to restore old Le dynasty, the capital of which had been located in the center of northern Vietnam. No evidence of idea for reform is found in the life of Cao Ba Quat, who was one of the most experienced intellectual of his time with the observation of outside world, and had a critical view on the China-oriented group. This was the limitation of Cao Ba Quat. But it seems to be the reflection of a general sentiment of northern intellectuals who were too much obsessed by dissatisfaction rather than to try to find possible way to change the problematic situation by the searching of new means. This was a striking contrast with the attitudes of their counterparts in China, Korea, and Japan.

**Key Words :** Cao Ba Quat, Ha Chau, Tu Duc, northern intellectuals.